

전여대협 출범식 기획안

◎ 전여대협 출범식의 의의, 목표

1. 전여대협이 받아안아야 하는 정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50만 여학우들의 투쟁의지를 확인하고 이후 투쟁을 결의하는 장입니다.
 - 전민항쟁의 주역인 50만 여학우들의 김영삼 타도의지를 연세대 항쟁 성추행 진상규명투쟁을 통해 하나로 모아내고 더욱 힘있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장.
2. 전여대협 총회에서 보여준 여학간부들의 열의, 열정을 모아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을 분쇄하고 전여대협, 한총련을 강화하는 길로 모아내는 장입니다.
 - 전여대협 강화는 곧 한총련 강화입니다. 한총련에 대한 정권의 탄압앞에 전여대협 50만 여학우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우대중의 분노를 투쟁으로 분출시켜 투쟁속에서 강화되는 전여대협, 한총련을 만들어갈 것을 결의하는 장입니다.
3. 의장님을 전여대협 50만 여학우의 사상적, 실천적 중심으로 힘있게 옹립하는 자리입니다.
4. 100만이 함께 하는 한총련 출범식 안에서 여학우들의 김타도 의지, 조국통일의지를 과시하는 장입니다.
 - 연대항쟁 성추행 진상규명투쟁, 하나나 축전 참가결의,
 - 류재을 열사 장례식 투쟁 → 여학일꾼들의 모범적인 투쟁 총화

◎ 기획안

<어는마당>

-50만 여학우들의 전여대협, 한총련 출범식 참가와 사수의 의지를 높이는 자리

사회자 : 충북 서원대총여학생회장

- ① 전여대협 진군가 배우기(노래패 1-2인), 울동 배우기(서여대협 울동패)
- ① 지역별 결의(지역별 대표자, 새내기 1인 조직)
- ① 환영인사와 결의(출범식 준비위원장 인사)-서을 동지여대협 대표자 중 1인
- ① 서여대협, 혹은 동지여대협 여학일꾼중심으로 문예판-출검게

<본행사>

사회자 : 남여대협의장

- ① 개회사
- ① 애국의례
- ① 축사-한총련의장님 혹은 조총위위원장님
 - 연대항쟁 성추행 진상규명투쟁의 내용을 조금 가미해서 결의세워주시는 발언
- ① 연대사-한국 여성단체 연합, 전국 여성 농민회 총연합, 주한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 본부 등
- ① 문예공연-부경여대협:연세대 항쟁 성추행당시의 상황을 중심으로 극을 준비(부경여대협 출범식에서 공연)
- ① 전여대협 기간 투쟁 보고-연대항쟁 성추행관련 보고, 정치연설(서여대협의장)
 - 하나나 축전 참가에 대해(왜 참가하는가, 정당성들을 중심으로 발언-부경여대협의장)
- ① 의장님옹립과 3기 전여대협 출범 선포식-전여대협의 역사를 조명하고 그 속에서 2기 의장님의 축하 인사말
 - 의장님 옹립공연:중앙문예단의 옹립공연(이후 투쟁과제를 형상화하는 내용과 결의 등)
 - 옹립공연을 누가 할 것인가...
 - 의장님 옹립 및 결의의 말 및 출범 선언문 낭독

◎ 물품판매

-연대항쟁 성추행 진상규명투쟁기금마련을 위한 티셔츠 판매, 정신대 할머니 엽서, 두레방 뽕판매

- 민족정기 14대 추경학생회 -

● 97년 3기 전여대협

올바른 여학생 운동의 사상을 정립하고 지역여대협의 자립자활력을 높여내면서 의장님을 중심으로 사상, 조직, 실천적 단결을 이루어내는 과제 속에서 96년 연대항쟁 성추행 진상규명 투쟁으로 김영삼 타도투쟁을 힘있게 벌여내고, 공안탄압의 칼바람 속에서 전략적인 반미자주화 투쟁과 민중여성들과의 구체적인 연대로 이땅여성들의 자주성을 짓밟는 행위를 철저히 짓부수고, 민중과 함께 전민항쟁의 상을 그려나가고자 하였다. 김영삼의 집권말기의 발악으로 의로운 청년학생의 투쟁을 이적이라 규정하고, 학생운동 한총련 말살책동으로 구속자와 수배자가 속출하고, 대표자가 연행되는 속에서 일정정도 연대항쟁 성추행 진상규명 투쟁을 진공적으로 벌여내지 못하고 각 단위 대오를 살리기 위한 투쟁으로 복무되어 이중의 조직적 과제가 남게되었다.

● 98년 4기 전여대협

97년 광폭한 탄압을 뚫고 선거를 치루어내고, 주한미군에 의한 허주연씨 살해를 계기로 이 투쟁과 300차 수요집회 상경투쟁을 벌여내면서 단위를 복구하고, 투쟁속에서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하였다. 98년 여학생운동 10년을 맞이하여 그 역사를 계승하고, 명확한 여성자주화 사상의 정립으로 여학생 운동의 질적인 도약을 이루어내고, IMF경제침탈과 미국의 한반도 식민지배 안정화 구도가 확연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반미자주화 투쟁을 전면에 내걸고 그 선봉에서 투쟁을 벌여내면서 실천 속에서 조직을 사수, 강화하고 민중여성들의 희망으로 우뚝서고자 한다. 작년 힘있게 벌여내지 못한 연대항쟁 진상규명투쟁과 허주연씨 살해범 구속처벌 투쟁, 이전의 성과를 이어받아 성폭력 규제 학칙제정투쟁을 벌여내면서 4기 의장님을 중심으로 50만 여학우의 자주적 대중조직으로 굳건히 서나갈 것이다.

15m.